



##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정기총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소피텔엠베서더호텔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송재익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김직승 전인쇄연합회장 등 내빈과 남원호 서울조합이사장 등 대의원 1백 여명이 참석했다.

이충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든든한 화합과 유대강화를 통해 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무한 경쟁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서비스 산업으로 면모를 갖춰 디자인은 물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양여금 처분(안) 승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2011년도 사업 자금 차입 한도액 결정 결의(안), 총회의결 사항중 이사회 위임결의(안), 협동조합 추천제도 추천한도 설정 결의(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 부분별 시상으로 우수조합 부문에는 부산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상), 전라북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상)이, 협동조합육성 공로 부문(연합회장상) 공로장에는 조정석 대원문화사 대표, 심응선 광명인쇄사 대표, 이철안 일성프린팅 대표가, 표창장에는 양우현 제주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상무이사가 수상했다.

우수경영부문 표창(중기청장상)에는 나홍식 삼일인쇄사 대표, 이강호 리드컴 대표, 조대제 삼양스크린 대표, 김종만 현대인쇄사 대표, 노신건 거산문화사 대표, 방운덕 삼서아이앤미(주)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관계기관 유공 부문 감사장(연합회장상)에는 이행로 중기청 기업협력과 주사와 한수호 중앙회 공공구매팀 직원이 수상했다.

감사선출과 이사보선의 건에는 박의현 대구경북인쇄조합 전 이사장이 유임됐으며, 심응선 인천인쇄조합 전 이사장이 새로 선임됐다. 이철안 대구경북인쇄조합 전이사장은 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각 지방조합에서 신임이사장을 선출한 지역은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남원호 비지아이 대표를 비롯해, 울산경남조합 이사장은 장태권 합동인쇄사 대표가, 인천조합 이사장은 이정수 중앙프린텍 대표가 선출됐다. 대구인쇄조합 박희준 이사장과 광주전남인쇄조합 이수만 이사장은 연임됐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충원회장(왼쪽)과 협동조합육성 공로부문 수상자

